

# 제물(祭物)과 약물(藥物)의 구비서사를 통해본 타자 만들기와 타자의 주체성

최원오(서울시립대)

1. 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특히 구비서사문학의 작품에서 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타자의 주체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타자의 주체성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물(祭物)과 약물(藥物)이라는 화소(話素)를 가지고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자면 본격적 검토에 앞서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확히 말하자면 필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와 타자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주체와 타자라는 개념이 학자에 따라 여러 용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은 구비서사에 속하는 문학 작품들을 검토하는 것이기에, 이들 개념에 대한 난해한 논의, 예컨대 알튀세, 라캉, 지젝 등의 논의를 끌어오지는 않는다. 대신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차원에서의 이들 개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논의를 끌어가고자 한다. 구비서사문학이란 것이 철학자가 아닌, 평범한 생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가장 보편적 차원에서 주체와 타자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은 감각, 사유, 의지 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특정 행위나 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때 그 행위나 작용을 대상에 끼치게 되면, 그때의 대상은 타자, 그것을 유발하는 것은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체와 타자를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2. <효자 호랑이> 또는 <호랑이 담배 피는 내력>으로 알려진 설화를 잘 알 것이다.<sup>1)</sup> 이 설화에 의하면, 정씨(鄭氏)라는 사람이 병환에 든 노모

(老母)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시주를 온 대사로부터 부적 두 장—한 장은 호랑이 탈을 쓰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 장은 그 호랑이 탈을 벗는데 필요한 것이다—을 받아 100일 간 개를 매일 한 마리씩 백숙으로 만들어 노모께 드리게 된다. 그런데 정씨가 99마리째의 개를 잡아오던 날, 그의 아내가 밖을 절대로 내다보지 말라는 남편의 부탁을 어기고 만다. 그녀가 본 것은 이렇다. 남편이 처마 밑에 감추었던 부적을 꺼내더니 무어라 외고 곧 커다란 호랑이가 되어 밖으로 나갔던 것. 이에 놀란 아내는 남편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처마 밑을 뒤져 두 개의 부적을 찾아내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선의적(善意的) 행위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 태워버린 부적 없이는 남편이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여보, 어머니 병환도 병환이지만, 그것이 없어진 지금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가 없군요.”하면서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것이, 그만 아내의 머리 가죽을 벗기게 되고, 이에 남편은 절기에 사로잡혀 그만 아내를 번쩍 들었다가 땅에 던져 즉사를 시킨다. 또한 밖에서의 두런거리는 소리에 궁급하여 문을 열고 나온, 그의 노모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는 순간 졸도하여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후의 서사는 그 효자 호랑이가 산 속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로 살아가다가 동문수학했던 예전의 친구를 만나 담배를 한 대 얻어 피우고는 ‘군등청운거 여망청산거(君登靑雲去 余望靑山去. 그대는 벼슬길에 올라 가고, 나는 푸른 산을 보며 가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설화에서 우리는 인간 ‘정씨’가 ‘효자 호랑이’,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 ‘담배 피는 호랑이’라는 세 가지 성격의 등장인물로 규정되는 것을 본다. 누가 작중의 ‘정씨’를 이처럼 다양하게 규정하는가? 설화, 특히 민담의 “등장인물에게는 감정세계가 없고,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정신적 깊이도 없다.”<sup>2)</sup>고 한다. 이 설화에서의 정씨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이 설화의 전승 집단에 의해 규정된 등장인물로 존재할 뿐이다. 즉 이 설화의 전승 집단은 서사의 주체가 되고, 정씨는 타자가 된다. 이때 규정하는 자와 규정되는 자

1) 成善說 著, 『한국민담의 세계』,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2, 65-69면.

2) 막스 루터 지음, 『유럽의 민담』, 김홍기 옮김, 보림, 2005, 33면.

는 필연적으로 차별성을 전제로 상호 존재론적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한 차별성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가적(兩價的) 속성을 갖게 마련이다. 인간과 호랑이는 결코 동질적일 수가 없으며, 그래서 그 호랑이는 ‘인간과 어울릴 수 있는, 또는 어울릴 수 없는 호랑이’라는 양가적 속성의 타자로만 규정되는 것이다.

3. 타자는 왜 필요한가? 그것은 문화론적 의미에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한 문화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타자이기 때문이다. <효자 호랑이>에서 타자는 (효자) 호랑이이기도, 그 호랑이를 포괄하는 자연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연을 자연으로, 호랑이를 호랑이로 인식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적어도 인간은 호랑이처럼 인간을 잡아먹지는 않으니까. 그 점에서 호랑이나 자연은 인간 주체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주체는 타자에 의해 성립된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주체가 타자를 규정하지만, 그것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타자가 주체를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체와 타자는 상호 연계된 유기체적 속성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타자라는 것은 결국 주체의 객관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 둘째, 그리하여 주체는 이질적이라고 생각되는 타자의 속성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는 것. 셋째, 주체가 타자를 인식할 때, 타자를 순수하게 이해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도 윤리적 차원에서 인정하려 한다는 것. 물론 이 때의 ‘현실적이고도 윤리적 차원에서의 인정’은, 앞서 말했던 타자의 양가적 속성과 연계되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들과 관련하여 <효자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를 포함한 자연이라는 타자를 보는 인간 주체의 문화론적 시각을 더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다. 인간이라는 문화론적 주체인 ‘정씨’는 인간 세계와 호랑이 세계의 경계를 넘나들다가 점차 ‘진짜 호랑이’의 세계에 머물게 된다. 이것은 주체란 하나의 과정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거니와, 타자로서 규정되는 호랑이의 세계라는 것, 더 나아가 자연 세계라는 것은 인간 주체의 인식이 점차 객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확립된 산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인간 주체가 점차 호랑이라는 타자가 됨으로써, 주체는 타자와 전적으로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주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인간이 효자 호랑이가 되고, 효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되는 과정은 주체가 타자의 속성을 채워가는 과정인 것이다. 정씨가 노모에게 효도를 하려는 것은 인간 주체의 문화론적 사고에 입각해 있는 것이지만, 100마리의 개를 포획해야 하는 그의 행위는, 소위 자연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그것과 倣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위를 숭고하게 만드는 것은 ‘효’이다. 자연 세계의 호랑이가 인간 주체의 문화론적 시각에 입각한 타자로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타자란 결국 주체가 주체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 주체가 주체의 정체성을 반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성을 갖는다. 그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상호 연계된 유기체적 속성을 구축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이 주체와 타자의 균등(均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포악한 호랑이가 아무리 ‘효자 호랑이’로 인식되더라도, 그것은 타자의 비인간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또한 고정 불변의 주체와 타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주체가 타자를 규정하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효자 호랑이> 설화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집약하고 있는 개념이 ‘약물(藥物)’이다. 인간 주체로서의 ‘정씨’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의 인간적 능력으로써는 노모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 즉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오갈 수 있는 둔갑법(遁甲法)이 제시되고, 그것은 그가 약물과 연계된 자연이라는 타자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중국에는 그 타자의 일원이 되게 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인간 주체가 객관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이라는 타자가 주관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유기적 연계성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암묵

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상태의 인간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 호랑이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또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정씨의 태도는, 민담의 작중인물의 성격이 전혀 입체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통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인간 주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4. ‘약물’은 문화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타자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간 주체의 세계로 적절히 끌어들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 주체와 타자의 불균일성을 유지해 나가는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동자삼(童子蔘)’ 설화에 속하는 작품 하나를 더 검토해 보기로 하자. 여기서 제시하려고 하는 작품은 <아들을 삶어서 어머니病을 낫게 한 효자>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 제목대로라면 아들을 어머니 병을 구완하기 위한 약물로 사용한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인륜이 지켜지기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도 하는 내용의 설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화의 결말은 그러한 괴기성이 실현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내외가 있었다. 약을 여러 가지로 써 보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이 시주를 오자 노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슨 약이 좋을지를 물었다. 그러자 중은 어린 아이를 삶은 국물을 먹게 해야 낫는다고 말했다. 이에 내외는 자기 아들을 삶아 그 국물을 노모께 드리기로 하고, 서당에서 돌아온 아들을 잡아 솥에 넣고는 불을 지피 삶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집으로 들어 왔다. 내외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열린 솥뚜껑을 열고서 솥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솥 안에는 아이만한 산삼이 들어 있었다.<sup>3)</sup> 병든 노모도 살리고, 자식도 희생하지 않게 되었으니 내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괴기스러운 행동은 오히려 정당한 것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이 설화의 전승자도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태, 내외의 괴기스러운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이 사람이 소성이 지극해서

3)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함경남도 편 I』, 평민사, 1993, 196-197면.

山蔘을 아덜모양으로 해서 보내 준 거이다. 이 사람은 그 산삼 삶은 국물을 늪은 어무이한테 들여먹었더니 빙은 깨긋시 낮었다.”<sup>4)</sup>

이 설화에서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내외는 병든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해 있음을 절실히 느껴야 했다. 그러던 차에 시주를 온 중으로부터 해결의 단서를 얻게 된다. ‘어린 아이를 삶은 국물을 병든 노모께 먹이라는 것.’ 이 얼마나 섬뜩한 제안인가! 인간 주체는 내부로부터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타자를 인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즉 인간 세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타자를 끌어들이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분출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 주체는 그 섬뜩한 제안이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지만 아이는 또 낳을 수 있는 것’<sup>5)</sup>이라는 아주 단순한 셈법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그 제안을 하는 중 역시, 이러한 주체의 의지를 객관화, 단순화시키고 있다. 제대로 된 중이라면 살인을 하라고 제안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말만 중이지 이 설화에서의 중은 ‘내외’라는 인간 주체가 만들어낸 타자,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타자이기에, 제안을 하는 그 역시 제안을 단순하게 전달한다. 때문에 “맥을 보고 나서 이 뺨은 중뺨이라 여간 약으로는 낮우기가 예롭다. 약은 있기는 있지만 써기가 예롭다”<sup>6)</sup>라는 중의 말은 내외에게는 절대적이면서 단순하게 들린다.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약이 있다’는 것. 이제 내외는 그 약만 구하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내외의 비상식적 행위가 비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중은 ‘만들어진 타자’로서의 언행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 주체로서의 내외가 타자의 세계에 속하는 중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내외의 殺兒 행위는 이제 숭고한 행위가 된다. 여기에는 물론 타자로서의 중이 인간 주체로서의 내외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 그래서 숭고한 비인간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 인간 주체의 정체성은, 자식 된 입장에서 부모를 위한 것이

4) 위의 책, 197면.

5) <노모의 병에 아들을 약으로 쓴 효부>, 위의 책, 196면.

6) 위의 책, 197면.

라면 무엇이든, 설화의 표현을 빌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무엇을 해야 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화를 위해서 중이라는 송고한 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내외가 그들의 어린 아들을 타자의 시각에 동조하여 살해하려는 것은, 인간 주체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명분은 상호 관계 속에서 마련되는 것인데, 인간 주체의 정체성 확립 역시 독자적으로 정립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주체의 편에 함께 서 있더라도 언젠가 ‘주체-타자의 관계’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인간 주체의 섬뜩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외가 아들을 약물로 사용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 그들의 아들은 단지 병든 노모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 그 얼마나 섬뜩한 인간 주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결심인가. ‘아들’에서 ‘약물’로의 전략, 주체에서 타자로의 전략. 설화에서는 인간 주체의 이러한 전략을 무화(無化)시키기 위해, 인간이면서도 비인간화된 존재로서의 타자인 중이 내외의 호심을 시험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실은 인간의 전략이 타자의 인식, 타자와의 명확한 경계성을 허물어뜨리는 지점에서 구원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주체와 타자의 상호 연계된 유기체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산삼이 동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내외의 아들로 둔갑하여 나타났다는 점이다. <효자 호랑이>에서는 효자 정씨가 노모의 병구완을 위해 호랑이로 둔갑하여 타자로서의 자연 세계에 진입하지만, 이 설화에서는 자연 세계의 산삼이 인간으로 변하여 인간 주체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외가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끔찍한 친자 살해였지만, 그것이 타자가 주체화된, 즉 비인간적 타자가 인간적 주체로 둔갑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 주체가 겪는 혼란은 지극히 미미할 뿐이다. 17세기 초,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어린 소녀들을 납치하여, 그 소녀들의 피로 목욕하는 것을 즐겼던 에리체베트 바토리 여백작의 경우와 같은 인식<sup>7)</sup>이 이 설화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리하여 어린 아이의 젊음과 생기로써 늙고 병든 몸을

7) 장 마리니 지음, 『흡혈귀: 잠들지 않는 전설』, 장동현 옮김, 시공사, 1996, 34-35면.

치료한다는 것이었다면, 이 설화는 천자 살해에 대한 징치로 끝맺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자연이라는 타자와 연계되면서, 인간 주체의 천자 살해는 효로 치환되어 버리고, 이는 인간 주체의 혼란을 감소시킨다. 숭고한 타자인 자연 세계로부터, 인간 주체의 행위가 정당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타자를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타자가 인간 주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 설화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맥락 아래에서 이 설화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 주체의 인식을 너무 가볍게 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타자가 아무리 숭고하고 절대적 존재라도, 그것은 결국 비인간적 속성의 것으로써 남기 때문이다. <효자 호랑이>에서 정씨가 비인간적 속성의 호랑이로 타자화되는 것, ‘동자삼’ 설화에서 아들인 줄 알고 삶았는데 알고 보니 비인간적 속성의 타자인 산삼이었다는 것. 주체와 타자는 비균등성(非均等性)을 전제로 한 유기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둘 사이의 본질인 것이다.

주체는 타자를 인식함에 있어 배제와 분열의 양상을 보인다. 주체와 타자 간의 비균등성은 주체가 타자를 배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체는 타자의 불순함, 열등함, 또는 고상함을 드러내 주체와의 동질성을, 균등성을 부정한다. 타자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거나 길들여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즉 배제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실제로 인간은 자연 세계에 속하는, 또는 그 너머의 초자연적 세계에 속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인간이 순수 주체로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주체의 분열이 생겨나는 이유다. 타자를 배제하려고 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효자 호랑이>에서 호랑이가 한때 인간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호랑이가 인간 주체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자삼’ 설화에서 내외가 아들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타자인 산삼을 끌어들이 무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인간 주체의 분열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인간 주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될 터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타자의 수용을 약물이라는 시각으로 한정하고, 거기에 ‘효’라는 윤리적 속성을 덧입히는 것은 인간 주체의 분열을 감추면서 인간 주체의 정체성 확립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장치인 셈이다.

5. 약물은 그것이 식물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무엇인가의 희생을 전제 하는 용어다. 그런데 ‘희생’을 공통분모로 하는 용어가 바로 ‘제물(祭物)’이므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제물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주로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물은 인간이 초자연적 존재에게 바치는 것으로써, 인간 주체의 세계와 초자연적 타자의 세계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초자연적 존재의 영험을 바라거나, 그 영험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선물로 기능한다. 약물이 자연 세계를 인간 세계에 편입시키는, 즉 타자를 주체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면, 제물은 인간 세계를 초자연적 세계(또는 자연 세계)에 편입시키는, 즉 주체를 타자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주체와 타자 간에 역전(逆轉)이 일어난 듯하다. 그러나 인간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려는 집단에 의해 먼저 타자화가 이뤄지고, 타자화가 된 상태의 제물로서 초자연적 타자에게 바쳐지는 것이어서 제물을 바치는 인간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타자와 타자의 관계로 내맡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화 한 편을 예로 들어보자. 강원도 양양군 향성리 마을에 비룡폭포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사는 괴물의 조화로 가뭄이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치며 기우제를 지냈으나 효험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이웃 마을 노인의 말에 따라 처녀를 사다가 제물로 바치고 기우제를 지내니 비가 왔다. 그 때가 되면 가뭄이 들어 해마다 처녀를 바치며 기우제를 지냈으므로, 딸을 둔 사람이 모두 이사를 가자, 다른 사람도 마을을 떠났으므로, 마을이 텅 비게 되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텅 빈 마을에 들어와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사니, 다른 사람도 들어와 살았다. 다시 가뭄이 들자 예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기우제를 지냈다. 처녀 아홉을 잡아먹은 못의 괴물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자 비가 내렸다. 이후 그 폭포는 용이 올라간 폭포라 하여 비룡폭포라고 불리게 되었다.<sup>8)</sup> 이

8) 김선풍·김기설 공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4(강원도 속초시·양양군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와 같은, 초자연적 존재에게 제물을 바치는 내용의 설화는 그 결말이 거의 정해져 있다. 즉 초자연적 존재에게 어떻게 해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는가 하는 것이 설화의 결말인 것이다. 예로 든 설화에서처럼 초자연적 존재가 일정 수의 제물을 받은 뒤 더 이상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든지, 초자연적 존재가 제거된다든지 함으로써 제물 바치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런 식의 결말에 유의하여 보면 타자로서의 초자연적 존재는 인간 주체에 의해 배제되는 대상이다. 주체가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주체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일반적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설화들은 문화론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타자로서의 자연을 극복해 왔음을 말하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앞서 약물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설화에서처럼, 제물과 관련된 설화에서의 인간 주체 역시 모종의 주체 분열을 설화 속에 반영하고 있다. 주체의 분열은 타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주체 속에 일정 부분 타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때 발생하게 된다. 주체는 타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건, 고상한 것으로 규정하건 타자를 인식하는 순간 불안감을 갖게 되고,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한 작업, 즉 주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작업을 시도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주체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킨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낯선 타자를 친숙한 것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생기지만, 이는 완전한 극복 방법이 아니다. 괴물이 주기적으로 인간 처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 처녀의 생산성을 주기적으로 흡수하려는 것이니, 인간의 역사가 이러한 생산성에 근거하여 지속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낯선 타자가 친숙한 타자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처녀를 계속해서 바쳐야 하는 것에서 암시되듯 지속적 희생을 필요로 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타자가 인식됨으로써, 그리하여 주체가 분열하는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주체의 분열은 정작 그 주체 내부에 숨겨져 있다. 주체 내부의 분열이 타자와 연계되면서 비로소 그 분열의 원인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설화에서 마을 사람들은 가뭄의 원인을 타자인 괴물에게서 찾고,

---

구원, 1983, 55-62면.

그 괴물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친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마을 처녀 한 명씩을 희생시키는, 집단적 죄를 저지른다. 마을, 특히 집단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농경마을과 같은 집단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주체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던 타자 만들기의 관행이, 또 다른 타자의 세계인 초자연적(자연적) 세계와 연계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되고, 내부의 분열을 은폐하기 위해 그것을 외부로 돌리는 시도가 진행된다. 그렇게 해서 가뭄이 원인이 된, 타자로서의 괴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집단의 풍요 보장과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제의의 형태로 자리를 잡는다.

인간 처녀의 생산성이 자연의 생산성으로 치환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인간 주체가 만들어낸 것이지 초자연적 존재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인간 주체의 믿음을 타자의 입을 빌려 객관적 형태로,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公表한 것일 뿐이다. 공표된 제의의 악습(惡習)은 내부의 분열을 간파한 자나, 봄과 가을의 상징적 싸움처럼 자연계의 정화작용에 의해 해결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마을을 지나가던 청년이 처녀를 제물로 받는 괴물을 제거하는 내용의 설화<sup>9)</sup>나,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두꺼비가 괴물 지네를 물리친다는 내용의 설화<sup>10)</sup>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인데, 전자의 경우 인간 주체의 해결 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후자의 경우도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 두꺼비의 행위가 결국 ‘인간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

9) 옛날에 한 젊은이가 모친을 모시고 나무를 팔면서 어렵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가 잡은 잉어를 자기 나무 짐과 바꾸어서 놓아주었다. 그날 저녁에 한 노인이 나타나 지네장으로 가서 살라고 말했다. 지네장에는 처녀를 바치는 습속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흉사가 생겼다. 젊은이가 처녀 제사를 지내러가는 행렬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처녀를 방면하고 사당에 불을 지르라고 했다가 부정 탄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얻어맞아 혼절했다. 깨어난 젊은이는 도끼와 칼을 들고 사당에 들어가, 처녀와 옷을 바꾸어 입고서 지네를 기다렸다. 지네가 나타나자 도끼를 머리를 찍어 죽였다. 젊은이는 처녀와 결혼하여 잘 살았고, 황무지였던 지네장은 옥토가 되었다. 김승찬 편저, 『경남지방의 민담』, 제일문화사, 1985, 261-264면.

10) 일정 기간마다 지네에게 처녀 제사를 지내야만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가난한 집의 처녀가 두꺼비 한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다. 제물로 바쳐지는 날, 두꺼비가 나타나 지네와 싸우다 두꺼비와 지네는 죽고 처녀만 살아남았다. 이후 이 마을의 처녀 제사 습속은 사라졌다.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인간 주체가 그 스스로의 분열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인간 주체 스스로에 의해 마련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나 타자 모두 절대적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체의 분열 역시 절대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나가던 청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물로 바쳐질 처녀를 방면하고 사당을 불질러버리라고 했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얻어맞아 혼절한 것은,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겪는 분열 의식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데서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괴물이 그 청년에 의해 제거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타자로서의 '지나가던 청년'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분열을 느껴야 한다. 이제까지의 관행을 깨트려버린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또한 후자의 설화에서 보온하는 두꺼비는 마치 효자 호랑이처럼 인간 주체의 윤리적 속성을 실천하고 있는데, 보온 역시 효처럼 인간 주체의 분열을 효과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 주체의 분열은 타자와의 유기체적 연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며,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인간 주체적인 타자—효자 호랑이, 보온하는 두꺼비—를 만들어 그 분열을 은폐하는 행위를 도모하거나, 새로운 분열 의식을 가져야 하는 상태로의 전이로 나타난다.

6.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약물과 제물은 타자와의 연계 속에서 인간 주체가 보이는 배제와 분열을 잘 나타내준다. 그리고 이는 인간 주체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약물 및 제물이 되는 사람은 인간 주체 내부에서의 타자로 규정되는데, 이는 타자로서의 자연적 또는 초자연적 세계와의 연계 과정에서 갖게 되는 인간 주체의 분열을 은폐하기 위한 대응 방식이다. 즉 이들에게 주체와는 다른 비균등성, 즉 산삼과 동일시되는 자식, 자연의 생산성을 치환할 수 있는 인간 처녀의 생산성 등의 자질이 부여된다. 그리고 때로는 효자 호랑이, 보온하는 두꺼비처럼 타자에 윤리적 속성을 부여하여 주체의 분열을 타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인간 주체의 정체성 확립 방식이고, 그 정체성의

확립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타자 만들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게 된다. 그 점에서 약물과 제물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문화론적 주체로 정립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제 약물과 제물이 뒤섞여 인식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물과 제물은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들의 뒤섞임 속에서 우리는 인간 주체의 또 다른 문화론적 정체성 확립과 타자 만들기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속신화 중에서 <바리공주>는 약물과 제물의 뒤섞임, 이와 연계된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다. 주지하다시피 <바리공주>는 아들을 바라던 오구대왕 부부가 딸만 계속해서 낳게 되자 일곱 번째 공주를 버리고, 그 죄로 득병하게 되나, 일곱 번째 공주가 저승으로 상징되는 서천서역국에서 약수와 약꽃을 구해와 부모를 살려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sup>11)</sup> 이 신화에서 현실계와 초월계는 팽팽한 긴장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오구대왕의 세계가 현실계, 인간 주체의 세계라면 초월계는 비현실계의 원리에 따라 존재하는 타자의 세계인데, 오구대왕은 그 초월계의 원리를 부정한다. 즉 타자로서의 초월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들을 낳으려면 대개년(大開年. 좋은 운수가 든 해)에 결혼해야 한다는 점복자(占卜者)의 예언에 따르지 않는다는든지, 또 딸을 낳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무시한다는지 하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초월계의 의사를 전달하는 점복자의 예언에 오구대왕은 “일각이삼추갓고,하루가열흘갓다/ 엇지대개년을바라라”<sup>12)</sup>, “폐길년에길례를하시엿슴으로/ 칠공주를보시리이다/ 이대로탑전에알외오니 / 대왕마마전교하시는말삼이/ 문복이영타한들,제무엇을안다든야”<sup>13)</sup>라고 답할 뿐이다.

그런데 오구대왕의 문제는 그가 초월계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데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그의 세계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원칙에 잠재되어 있다. 그는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사대봉사(四代奉

11) 赤松智城·秋葉 隆 共編, 『조선무속의 연구』 상,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15-47면.

12) 위의 책, 16면.

13) 위의 책, 27면.

祀)를 위해 아들만을 고집했다. 그 때문에 딸은 배제되어야 했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한 현실은 이미 주체와 타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따라서 오구대왕에게 그보다 더 큰 타자의 세계, 즉 초월계와의 상호 유기적 연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에게는 현실계 내에 마련한 타자와의 관계가 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자를 배제하는 순간부터 주체는 분열을 느끼게 마련이다. 타자를 배제한다는 것은 타자를 인식하였다는 것이고, 타자를 인식하였다는 것은 타자가 이미 주체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오구대왕이 여섯 번째 공주까지는 받아들인다면, 일곱 번째 공주를 버린 것은, 그의 분열상을 잘 설명해준다. 또한 그가 타자로서의 초월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점복자의 조언을 구한다든지, 그가 “사해룡왕(四海龍王)께/ 득죄헌대로진상이나보내리라”<sup>14)</sup>하고서 초월계와의 소통을 간구하는 것은, 타자로서의 초월계에 대해 갖는 그의 분열상을 잘 드러내준다. 그 점에서 오구대왕은 이중적 분열을 겪고 있는, 불행한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가. 오구대왕은 왕통(王統)과 사대봉사에 집착하여 초월계와 일곱 번째 딸을 배제하였다. 이때 전자의 ‘무엇’은 인간 주체가 스스로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고, 후자의 ‘무엇’은 전자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후자의 ‘무엇’은 물론 타자다. 그 점에서 타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주체도 마찬가지다. 오구대왕의 이중적 분열은 주체의 불확정성,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수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황에 따라 그 수용의 정도, 즉 분열의 양상을 달리 드러냄으로써 주체의 불확정성을 드러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오구대왕의 갑작스런 득병은 그가 견지하고 있는, 타자를 보는 시각, 그리고 그가 안고 있는 주체의 이중적 분열상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주체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주체가 타자를 바라볼 때에 갖는 열등, 불순, 질병 등이 이미 주체 속에서 싹튼 것들의 전가(轉嫁)일 뿐

14) 위의 책, 29면.

이라는 사실을, 오구대왕의 득병이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가 안고 있는 질병은 아이러니하게도 타자의 대가를 혹독하게 요구한다. <바리공주>에서 제물과 약물이 문제되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다. 바리공주는 태어나자마자 뒷동산에 버려졌다가, 이내 사해용왕께 진상품으로 보내진다. 득죄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죄를 받기 위해 바리공주가 사해용왕께 진상된다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신을 달래기 위해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그의 원망(願望)을 신에게 전달하는 제의 구조와 흡사하다. 그러나 신화의 전체 내용상 제물이 갖는 희생양적 성격이 바리공주에 강하게 투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아주 미미할 정도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바리공주 이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 바리공주가 갖는 제물로서의 성격보다는 약물 탐색자, 운반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부여된 까닭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리공주가 갖는 타자로서의 중층적 성격, 즉 제물과 약물로서의 두 가지 성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타자가 달리 규정되어 가는 과정에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 후자가 더 세심한 논의를 요구한다. 바리공주가 처음에는 제물로서 타자화되고, 나중에는 약물 탐색자, 운반자로서 타자화되는 과정은 제물과 약물이 어떻게 상호 연계된 유기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해명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리공주가 제물로서의 타자로 규정된 원인은 왕통, 사대봉사와 같은 국가 유지, 가문 유지에 있다. 우리가 앞서 든 설화의 몇 예에서 보았듯, 제물은 집단이 한 개인을 타자화시키면서 발생하는바, 바리공주 또한 이에서 예외적이지 않다. 이에 비해 약물은 부모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식이 타자화될 때, 그 타자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개념이다. 약물은 집단적이라기보다는 부모 대 자식이라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드러내주는 개념인 것이다. 이런 점들에 유의하면, 바리공주의 타자로서의 속성은 집단부터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층위에서건 타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타자 만들기의 광범위성을 드러내준다.

한편, 타자로서의 바리공주가 서천서역국에서 약물을 가져와 부모의 병을 고친 뒤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족 구성원의 세계, 이를테면 주체로서의

오구대왕의 세계에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앞서 든 설화의 예에서처럼 주체의 분열을 은폐하기 위한 모종의 논리가 작동되어 있다. 효자 호랑이처럼 바리공주는 순수 주체로서의 바리공주가 아니라 ‘효녀 바리공주’—이 점은 그녀의 여섯 언니들과는 대조가 된다—로서, 즉 효녀라는 단서가 붙은 바리공주로 재명명(再命名)된 타자일 뿐이다. 어떤 식으로건 주체의 정체성 확립 과정은 타자의 재명명을 수반함으로써만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리공주는 그러한 ‘재명명된 타자’로서의 수동성을 거부한다. 타자성을 고정시키려는 주체의 시도에 침묵하지 않는다. 그녀는 타자의 주체성을 외친다. “만신(萬神)의인위왕(人爲王)”<sup>15)</sup>, 즉 巫祖神이 되겠다는 것. 그래서 망자를 저승에 천도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 이렇게 해서 바리공주는 주체로서 살다 간 자들의 사후 세계를 책임지게 된다. 주체에 의해 타자는 만들어지지만, 그 타자에게 주체성을 결코 강박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금기시한다. 타자의 주체성은 타자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바리공주는 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바리공주가 보여주는 타자의 주체성은 오구대왕과의 관계를 청산할 수 없다. 여전히 그녀는 오구대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 즉 타자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바리공주는 오구대왕에게만 효를 실천하는 약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망자를 위해 효를 실천해야 하는, 달리 말하면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물로서의 존재로 승화되어야 한다.

이쯤에서 <바리공주> 신화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살펴볼 작품이 있는데, 바로 판소리 <심청가>이다. 이 작품에서 심청은 바리공주의 궤적과 유사한 타자적 삶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심청은 부친의 맹안(盲眼)을 치료하길 원한다. 따라서 설화적 논리에 따르면, 심청은 약물을 찾아나서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남경 상인들에게 제물로 팔아, 부친의 맹안을 치료해주겠다는 몽은사에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는 것. 약물과 제물이 심청의 삶에 교묘하게 교직되어 있음을 본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약물과 제물 중, 약물이 주가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심청은 제물이 되기 위해 그녀 스스로를 타자화시킨 것이 아니라, 부친의 맹안을

15) 위의 책, 44면.

치료할 목적으로 그녀 스스로를 타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덜컥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한 심학규가 그 원인자라는 점에서, 심청의 타자화 역시 만들어진 타자라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제물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동시에 약물 운반자라는 내피를 쓰고 있는 심청의 모습이다. 그녀는 타자 세계로서의 용궁에 갔다가 인간 세계에 돌아와서 부친을 만나기 위해 맹인들을 위한 거지잔치를 연다. 이것은 그녀가 제물로서 남경 상인들에게 팔려갔지만, 제물이 받아들여지는 세계, 그리고 주술적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초월적 공간으로서의 몽은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녀는 용궁과 같은 초월계를 체험하고서도, 타자로서의 초월계를 완전히 긍정하지 못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맹인들을 위한 거지 잔치를 열지 말았어야 했다. 부친의 맹안 치료를 위해 그녀 스스로를 희생한 대가를 믿었어야 했다. 이런 점들에 주목할 때, 심청은 타자로서의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제물이 되겠다는 그녀의 결단이 그녀를 ‘호녀 심청’으로 규정해버리듯, 그녀는 여전히 주체의 분열 은폐라는 그물망에 갇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특히 맹인들을 위한 거지잔치는 타자로서의 그녀의 주체성이 발휘되는 것이기도 하다. 부친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지잔치에 모인 모든 봉사들의 개안(開眼)이 그녀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심청은 한 개인에게만 혜택을 가져오는 약물이 아니라, 집단에 혜택을 가져오는 제물로서의 타자를 잘 보여준다. 침묵하던 타자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타자를 배제하고 있는 주체의 분열까지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봉사들의 개안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7. 이 글은 제물 및 약물과 연계하여 구비서사문학에서의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타자라는 것은 주체의 객관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때문에 주체는 분열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은폐

하여 주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효’와 같은 윤리적 속성을 타자에 덧입힌 것으로 보았다. 주체는 타자를 숭고한 존재, 즉 본질적으로는 비인간화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체는 타자를 계속해서 규정하려 들기 때문에, 결국은 주체도 타자도 불확정성에 포획된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약물과 제물이 함께 연계되어 주체와 타자가 제시되는 경우의 작품들에서 우리는 ‘타자의 주체성’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만들어진 타자는 항상 침묵할 수밖에 없고, 은연중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기에 타자의 주체성을 기다린다는 것은 요원하다. 그러나 개인적 혜택에 그치는 약물이 사회적 혜택을 약속하는 제물의 속성까지 포괄할 때, 타자의 주체성은 일말의 목소리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이 또한 집단 주체가 갖게 되는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다. ‘부모-자식 간의 개인적 효’가 ‘사회-개인 간의 사회적 효’로 확산되어, 침묵하던 타자가 주체의 목소리로 또 다른 주체의 생각을 공표하는 순간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선풍·김기설 공편, 『한국구비문학대계』 2-4(강원도 속초시·양양군 1),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83.
- 김승찬 편저, 『경남지방의 민담』, 제일문화사, 1985.
- 成耆說 著, 『한국민담의 세계』,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2.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함경남도 편 I』, 평민사, 1993.
- 赤松智城·秋葉 隆 共編, 『조선무속의 연구』 상, 심우성 옮김, 동문선, 1991.
- 막스 뢰티 지음, 『유럽의 민담』, 김흥기 옮김, 보림, 2005.
- 장 마리니 지음, 『흡혈귀: 잠들지 않는 전설』, 장동현 옮김, 시공사, 1996.

Oral Narratives of Sacrifices and Medicaments on the Viewpoint of the  
Making Others and Other's subjectivity

Choi, Won-Oh

This paper examines the self and the other in oral narratives of sacrifices and medicament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reached concerning the self and the other in oral narratives of sacrifices and medicaments: the other in those oral narratives was formed by the self who always experiences disunion whenever it is recognized to him/herself, so the self makes his/her effort to seek a plot that fixes his/her natural shape. A filial devotion is one of the plots that ingeniously given to the other.

|  |
|--|
| 접수일자 : 2008. 4. 10<br>심사기간 : 2008. 4. 10~2008. 5. 20<br>게재결정 : 2008. 5. 20 |
|--|